

# 시 무 식 사

2022. 1. 3.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에 선거기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 처벌, 승합자동차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요건, 법관 탄핵 등 사회적 관심이 크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법리를 종합하면서, 헌법의 뜻과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한 모든 구성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더욱 깊이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헌법재판소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심판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적정하게 결정하여,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헌법 재판이며,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모두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폭증하는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보고 업무의 배분이나 사건처리의 순서 등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사건의 검토 절차는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연구부 조직과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래된 장기미제 사건 처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보고 사건의 재배당이 거듭된다거나, 고심할 이유나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심판지원실과 도서심의관 신설, 별관 청사 건립 등 많은 인적·물적 토대가 확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소의 본분인 헌법재판을 위하여 내실을 다지고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확대된 사무처 조직이 심판업무의 수행과 지원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계속 되돌아보며 틀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발맞추어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내부 재판업무 지원을 위하여 시작한 지능형 전자 재판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헌법재판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는 정신이 재판소 전체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체계적 연구와 헌법 교육과 연수에 관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 및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을 살피고, 앞으로 헌법재판이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한 세계의 흐름을 주시하고 파악하면서, 재판에 필요한 더욱 고도화된 연구 결과를 미리 쌓아 가는 역할도 요청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헌법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와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 3.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